

# 전남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시동

###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맞이 인센티브 신설·지원금 확대 미식·웰니스 등 12개 추천테마...축제투어·제주 여행상품 추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2-2023 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전통시장 방문 인증 지원금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갖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1일 전남도,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 상품으로 구성된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객의 권역별 분산과 특화체험 운영을 통한 체류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미식여행, 웰니스여행을 포함 총 12개의 추천테마로 운영되며, 올해 축제투

어와 전남-제주 여행상품이 추가됐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선비 지원을 신설했다.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는 농·어촌 체험, 레포츠 체험 등 총 6개 분야로 탄소중립관광 실천을 위해 플로깅, 비치코밍 등 친환경체험 분야를 추가했다.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여행사 및 여행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공고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다.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여행안전권역 체결 국가 지원 등을 포함해 5개 분야 8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여행안전권역 체

결 국가 입국자 대상 PCR 검사비 지원비와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방문 인증 지원금이 신설됐다. 특히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상비(숙박비), 전세기 운임 장려금, 우수여행사 특별 인센티브 등을 지난해 수준의 70% 이상 증액하였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유치 최소 인원을 3인으로 낮췄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우리는 아직 워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행 욕구는 그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여행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 것"이라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여행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진도 하조도~나배도 나배대교 개통

### 290억 들여 5년만에...섬 주민 교통 편의·관광 활성화 기대

진도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대교가 착공 5년여 만인 21일 개통됐다. 섬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날 진도 하조도 창유리 현지에서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배대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나배대교는 연장 370m의 해상교량이다. 총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2016년 12월부터 5년 2개월 공사 끝에 완공됐다. 진도지역 네 번째 해상교량이며, 조도면에서는 상조도-하조도를 잇는 조도대교 다음으로 지어진 두 번째 해상교량이다. 진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유인도 45개와 무인도 209개를 합쳐 모두 254개의 섬을 품고 있다. 특히 섬들이 새뎌처럼 많다는 뜻에서 유쾌한 조도면은 진도 섬의 70%가 넘는 178개의 유·무인도로 이뤄졌다. 전국의 읍면 중 가장 많은 섬을 갖고 있다. 지난 1997년 완공한 조도대교에 이어 24년 만에 나배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섬의 전문문화 유산인 조도뫼배노래가 조도 관

객에게 여행 재미를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조도뫼배노래는 봄의 전령사인 나비를 닮았다고 해 나비 섬으로 불린 나배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2006년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나배도 주민들은 그동안 하조도 근우 선착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여객선과 사선으로 면소재지를 왕래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대교 개통으로 본섬 조도를 언제든 다닐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고흥 사양-와교 간, 진도 하조-나배 간 등 2곳의 연륙-연도를 건설했다. 앞으로도 2024년까지 목포 달리-외달도를 추가로 건설해 섬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본섬 조도를 지적에 두고도 배를 타야만 했던 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열악했던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륙-연도교사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도서·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생활, 생산, 복지, 환경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섬을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후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위해 인수위와 소통”

### 이용섭 광주시장 “인수위에 지역인사 없지만 선후배 곳곳 포진”

광주시가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현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단은 인수위·중앙 부처 등과 가교 구실을 하는 총괄반, 새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

을 전달하는 정부 협력반, 공약 논리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공약 실행반, 관·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외부 협력단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부협력단은 지역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 하고 인수위와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을 비

롯한 시 공직자들은 이번 주부터 인수위 참여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인수위에 광주·전남지역 연고 인사가 없어 우려가 나오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했던 선후배들이 곳곳에 포진했다”며 “광주 핵심 현안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됐으니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국내·외 마이스 유치 잔결음

### 내일 여수서 온라인 설명회...인센티브·휴 마이스 시설 등 소개

전남도가 여수시와 함께 23일 여수 오션힐호텔에서 국내·외 온라인 마이스(MICE) 유치 설명회를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열어 올해 인센티브 제도 및 휴 마이스시설을 소개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 마이스 협회 회원사 및 기업의 대행업체(PCO), 관광협회 중앙회, 외국인의 국내여행(인바운드) 여행사 등 3500여 업체와 해외 마이스 전문 내국인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여행사 8000여 업체다.

현장 설명회에는 전남도, (재)전남관광재단, 여수시, 12개 지역 마이스 회의시설 관계자가 참석한다.

1부 국내와 2부 해외로 시간대를 달리해 진행하며, 여수 마이스 홍보영상 상영, 마이스 인프라 소개, 마이스 서포터즈 기획코너 등이 이어지고,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의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지역 이색 지역 명소(유니크 뷰)인 회의·숙박시설과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시설 67개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전남도는 코로나에 따른 마이스 산업 동향에 맞춰 현장(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행사를 함께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행사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마이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마이스 시설과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해서 안내해 전남을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남구·광주문화재단 선정

광주시는 21일 '2021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에 남구와 (재)광주문화재단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평가하는 북구, 광산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자치구 3개 기관과 공직유관단체 5개 기관 등 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수 기관에 선정된 양 기관은 ▲기관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과 실행력 ▲기관장 등 고위직 솔선수범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남구 진지향 주무관과 (재)광주문화재단 김민정 연구원이 광주시 표창장을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부 평가기준 이해도 제고 및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부동산 투기’ 1년간 64명 구속...국회의원 1명

### 6081명 수사 4251명 송치·1506억 몰수...상시단속 전환

경찰이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506억 6000만원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000만

원, 금품수수는 31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으며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 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농협 출자금 배당이익과 조합장 선거권 등을 위한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농협 직원 등 51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